

보건복지부, 보건산업 정책 외신 간담회 개최

- 외신 대상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정책 방향 설명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12일(화) 오후 3시 서울 중구 소재 해외문화홍보원 코시스센터에서 한국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정책 방향」을 주제로 외신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외신 간담회는 최근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각국 언론의 증가하는 취재 수요를 반영하고, 외신과의 적극 소통을 통한 글로벌 차원의 정책 홍보를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주재하였으며, 황의수 보건산업정책과장이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정책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 뒤 외신 기자들의 현장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전 세계 주요 매체* 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를 발판 삼아 바이오헬스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적 노력을 해외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외신과의 정책 소통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일본) NHK, Nikkei, TBS, (싱가포르) The Straits Times 등

박민수 제2차관은 “우리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전략 산업이자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 라며, “이번 외신 간담회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에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노력을 활발히 이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으로 2024년 주요 R&D 예산을 2023년 대비 12% 증가한 7,801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특히, 국가 보건 난제의 해결을 위한 도전·혁신적 R&D와 글로벌 연대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그룹과의 공동연구를 중점 투자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바이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우리의 젊은 과학자들이 글로벌 리더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 부서 <총괄>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황의수 (044-202-2901)
		담당자	사무관	김우람 (044-202-2903)
담당 부서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준영 (044-202-2030)
		담당자	사무관	지윤서 (044-202-2048)

